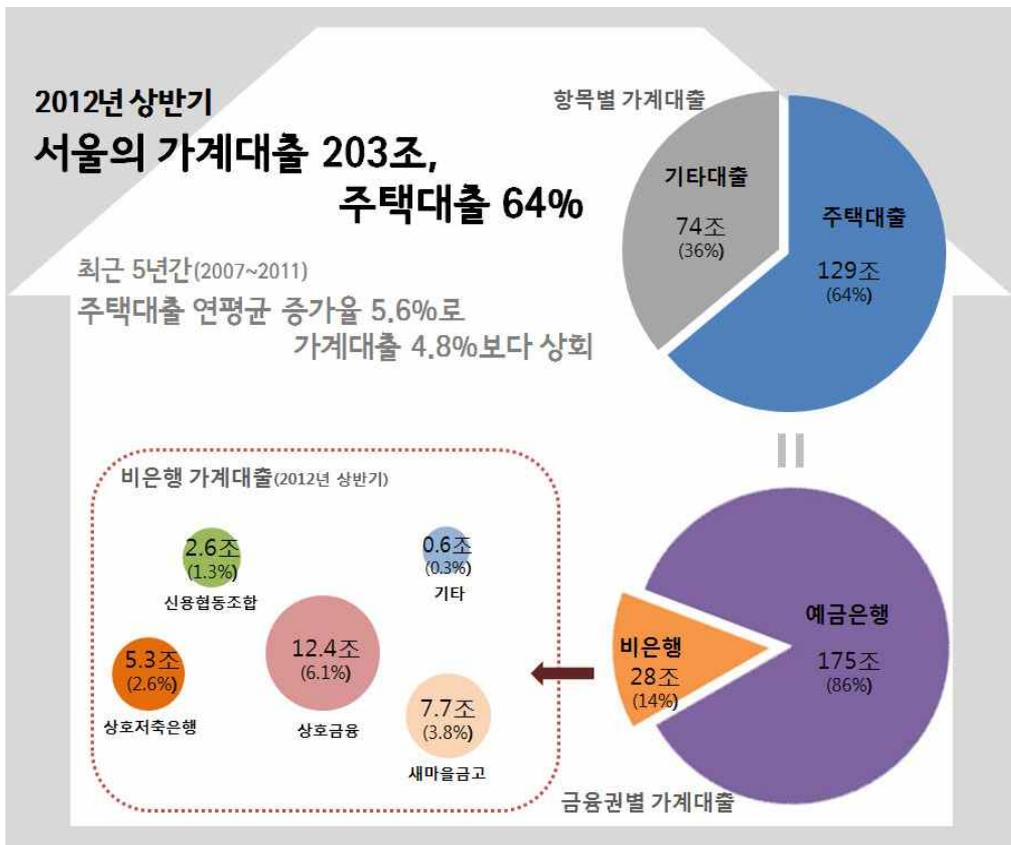


2012년 상반기 서울 가계대출 현황

서울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



자료: 경제통계시스템(www.ecos.bor.or.kr)

2012년 상반기 서울의 가계대출 203조, 최근 5년간 연평균 4.8%

- 2012년 상반기 서울의 가계대출 203조, 2007년 대비 1.2배 증가
 - 2012년 상반기 서울의 가계대출은 203조로(예금취급기관 기관) 2007년 대비 약 1.2배 증가
 - 이 중 주택대출은 2007년 대비 약 1.2배 증가한 129조로 가계대출의 63.7% 차지
- 최근 5년간(2007~2011) 서울의 주택대출 연평균 증가율 5.6%
 - 최근 5년간(2007~2011) 서울의 주택대출 연평균 증가율은 5.6%로 가계대출 연평균 증가율 4.8% 보다 상회
 - 최근 5년간(2007~2011)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 연평균 증가율은 3.3%로 주택대출 및 가계대출의 연평균 증가율 5.6%, 4.6% 보다 하회
- 2012년 상반기 서울의 가계대출은 예금은행 86%, 비은행 14%
 - 금융권별로 보면, 예금은행은 175조 293억원으로 가계대출의 86%, 비은행은 28조 573억원으로 가계대출의 14% 차지
 -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상호금융 및 새마을 금고 등의 기타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 확대

- **가계대출** :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의 총계로 누계치
- **주택대출** :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을 포함